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전국항~당진



▲당진읍 원당리에서 만난 닭개장. 멀리 나오는 것은 달랑 공기밥과 석박지 김치. 그리고 냉수 한 주전자 가 전부다. 하지만 닭개장의 깊고 풍부한 맛은 일당 백이었다. 닭을 재료로 한 음식중 최고가 아닐까 싶다.

◀“맛어, 닭 국물이 원래 이런 맛이었거든” 허영만 화백이 닭개장을 몇 수저 떠본 뒤 국물 맛에 감탄하고 있다. 장춘닭개장은 소박하지만 재료의 원래 맛을 잘 살린 훌륭한 음식이었다.



비박 탈영병, 그레 잠은 잘 잤나...

〈삼화=허영만〉 비박(bivouac)은 등반 중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야영장비로 밤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텐트 없이 침낭과 매트리스로 야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다소 확대됐다. 자전거 전국일주 중 야영은 비박이 원칙이다. 여행의 낭만을 더하고 짐의 부피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서 노숙하는 것은 비경험자들에게 쉽지 않은 노릇. 대원 대부분은 오랫동안 비박을 즐겨온 베테랑이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 기온도 낮았지만 바닷가이니만큼 바람이 많이 불던 밤, 비박에 익숙치 않은 2명의 대원이 몰래 탈영(?)해 인근 해수점질방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돌아왔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그릇 끓이는데 30분 반찬은 석박지 김치 뿐 닭개장 자존심에 말없는 손가락질만...

시골 마을 잔치집 초대받은 식객들
식신 돌변에 한때 풍악소리 중단도

>> E1면에서 이어집니다

시골으로라도 사양할 겨를이 없다. 촌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열목말때 속으로 달려드는 사자처럼 잔칫상으로 뛰어들었다. 헬멧,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걸신들린 듯 먹어대는 기세에 놀려 잠시 풍악이 멈췄을 정도.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야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한 짐승 보듯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진 최고 맛집의 오묘한 닭개장

원정리 잔치집에서 시골의 따스한 인심으로 예너지를 충전한 자전거 식객들은 평택항을 지나 아산방조제를 건넌고 삼교방조제를 건너자 짧은 겨울 해는 어느새 바다로 잠겨들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당진 지역 자전거동호회인 집자전거클럽 회원들의 안내로 이 지역 최고의 맛집이라는 장춘닭개장을 찾아갔다. 장춘닭개장은 창업주이자 주방을 총지휘하는 유장춘 아주머니의 이름을 딴 식당.

나공 있는 식당의 특징 중 하나가 메뉴가 간소하고 반찬도 아예 없거나 한두 가지로 끝난다는 점이다. 닭을 육개장 식으로 끓인 닭개장 한 메뉴밖에 없는 이 집도 반찬

이 달랑 석박지 뿐이었다.

닭개장이 준비되는 데는 약 30분이 걸렸다. 닭은 그날 쓸 것을 미리 삶아놓지만 국물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끓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온 닭개장은 첫 눈에 범상치 않다. 고추씨가 으깨지지 않고 온전한 모양을 하고 있을 만큼 거칠게 뿔은 고춧가루, 칼을 대지 않고 손으로 쪽쪽 찢어놓은 기름진 닭살.

“아, 이런 게 있었어?”

‘식객’을 연재하며 음식 취재에 깊숙이 트일 대로 트인 허영만 화백도 첫 술에 찬사를 보낸다.

식당 경력 30여년의 유장춘 아주머니는 원래 설렁탕이 주특기다. 그러나 10여 년 전 한우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잘 나가던 설렁탕 메뉴를 중단했다.

“한우가 아니면 설렁탕 맛이 안 나는데 한우가 너무 비싸지고 무엇보다도 구하기가 어려워. 수입 쇠고기로는 절대 맛이 안 나고, 그래서 그만두고 닭개장으로 간판을 바꿨지. 닭은 아침 점심 두 번 삶아서 찢어놓고, 고춧가루는...”

아주머니의 설명에 대꾸도 않은 채 우리는 닭개장에 탐닉했다. 닭기름이 등등 뜬 뜨거운 국물에 하루 종일 주위에 오그라든 몸이 비로소 풀렸다.

■ 남양읍 원정리의 한 회갑잔치에 자전거를 탄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송구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게걸스럽게 먹는 우리를 보고 마을 어르신들은 ‘원래 잔치란 가족, 친지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줘야 잔치의 주인공이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었다.

■ 공평리 꽃점마을은 마을 전체가 김장 중이었다. 절인 배추를 행구는 작업을 대원들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 전국항~당진(하)편은 12월 23일(목)자에 계속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제2010-28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비특약은 3년마다 갱신되며 종신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

편지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부부요가

앞으로 숙이기 허벅지살 쏙 ↓

빈티지 스타일 패션은 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낡은 듯 멋진 감각이 돋보이게 제작된 아이템으로, 세기말 청소년들에게서 유행한 영 스트리트 패션이다. 1960년대 히피 분위기와 하류층 복식문화 요소를 포함하여 낡은 레코드판 혹은 클래식 자동차와 같은 이미지이다. 남들과 똑같은 스타일을 거부하는 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멋을 알고 맛을 아는 이들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급스러운 것과 럭셔리 문화를 추구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청춘과 환희를 엿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사뭇 대조되는 느낌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대를 초월한 클래식 스타일 패션도 고매한 아름다움과 고유미의 빛을 머금고 있어 모든 이들의 열망

이 되기도 한다. 대조되는 두 패션을 믹스한다면 새롭고 창조적인 유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만 같다. 킬힐만 신던 여성도 하루쯤은 낡은 청바지에 스웨이드 소재로 된 캠퍼 슈즈를 신어보고 싶지 않은가? 필자도 때로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픈 마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마치 생과일 주스도 딸기와 바나나, 사과와 키위를 함께 갈아먹으면 더욱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하나로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원한다. 요가로 허벅지살과 복부비만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왕 다이어트를 마음먹었다면 골뎡지와 초콜릿 복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

※효과:

1. 1번, 2번 자세는 복직근을 강화하고 복부다이어트를 유도하며 하체 후면 부위를 이완시킨다.
2. 3번부터 5번 자세까지는 허벅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자세로 하체 전면부위를 신전하며 가슴을 확장시킨다.
3. 척추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하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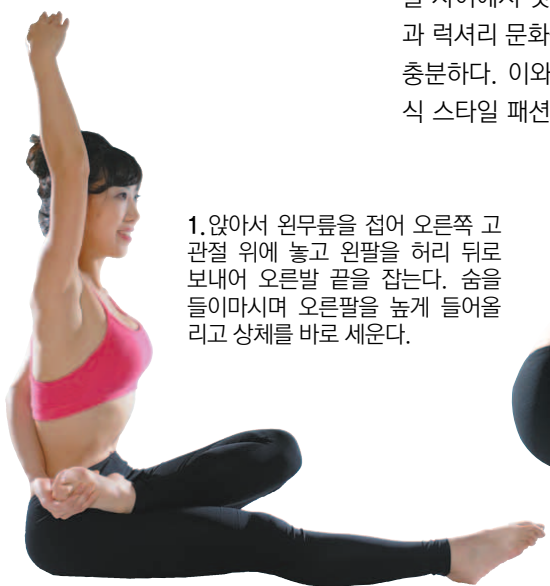
5. 완전히 누워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대고 허벅지에 자극이 미치는 것을 느끼며 전신이완을 한다. 10초 정지, 3회 반복.

글·동작 최경아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원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주의:

1. 1번 자세에서 발끝이 잡히지 않으면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거나 양다리를 모두 펴고 양팔을 위로 들어올린 뒤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2. 모든 자세를 비교해보고 경직이 심해서 잘 안 되는 쪽을 더욱 많이 수련한다.



1. 앉아서 왼쪽발을 접어 오른쪽 고관절 위에 놓고 왼팔을 허리 뒤로 보내어 오른쪽 팔을 잡는다. 숨을 들이마시며 오른쪽팔을 높게 들어올리고 상체를 바로 세운다.



2. 호흡을 내뿜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3.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어깨를 확장시킨다.



4. 오른쪽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왼팔꿈치도 바닥에 댄 후 시선은 천장을 바라본다.

